

# 비대면 강의로 고충 겪는 유학생

이동건 기자 ehdrjs3589@knu.ac.kr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이어지며 유학생들이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학생 A 씨는 잘 못된 과제를 제출해 낭패를 본 경험이 있다. 분량을 비롯한 과제 형식 안내가 온라인 강의 중 구두로만 이뤄져 이해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대면 수업이었다면 바로 교수님이나 주변 학생에게 질문을 했겠지만, 비대면 수업 환경에서 소통은 A 씨에

게 한층 더 어려운 일이었다.

중국인 유학생 청청(프랑스어학 2018) 씨는 “대면 수업일 때는 직접 대화할 수 있어 소통의 어려움이 덜 했지만, 요즘은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니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청청 씨는 “능숙하지 않은 한국어 발음이 마이크를 거쳐 전달되다보니 교수님께서 유학생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반대로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유학생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



유학생의 원활한 온라인 수업 수강을 위해 학교의 지원이 필요하다

(사진=피사베이)

도 많아 수업에 참여하거나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유학생 B 씨는 “팀플 할 때 소통이 힘들다는 이유로 한국인과 유학생을 나눠서 진행하는 경우

도 있었다”며 “교수님께서 상대적으로 유학생 팀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비대면 환경에서 유학생에게 생기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학교들은 전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숭실대 국제팀은 “본교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유학생들이 비대면 수업에서 선호하는 유형과 아쉬운 점을 조사했다”며 “그것을 기반으로 유학생 간담회를 진행했고 비대면 수업에서의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학교 외국인지원팀 위세호 과장은 “소통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한국어 능력의 부족함에서 나오기 때문에 외국인지원팀은 한국어 능력 강화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수학습지원센터는 “자막이 들어가는 등 유학생만을 위한 비대면 강의 프로그램은 아직 없지만, 문제점들이 논의된다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 2면 '꿈도전장학'에서 이어짐

하지만 장학 금액과 선발 인원 축소에 관한 충분한 공지가 없어 지원자들은 결과를 낱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3월 학생지원팀에서 공지한 안내문에는 선발 인원이 50명/팀 내외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이번 학기 꿈도전장학에 지원한 A 씨는 ”1차 서류 평가에서 만 9팀이 합격했다는 것을 알고 조금 당황스러웠다”며 결과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최종적으로 6팀만 합격시킬 예상이었다면 처음 공지부터 바로 접았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빈약했던 공지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무엇보다 지원 기간이 시험 기간이었고, 주 천서를 비롯해 제출해야 할 서류들도 많았기에 최종 합격 인원에 대한 정확한 공지가 있었더라면 신청을 고려해보았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꿈도전장학은 학생들에게 자아 성찰과 진로 수립의 기회를 제공하고, 융합 설계 능력 함양 및 교수와 학생 간의 실질적인 지도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꿈도전장학은 학생들의 꿈과 도전을 위해서 충분한 지원을 실행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장학 제도였지만, 지원자 A 씨는 “최종적으로 6팀만 선발한다면 자유로운 꿈을 응원한다는 장학금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또 다른 형태의 경진 대회나 공모전이 될 뿐”이라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지원자 수가 줄어 합격자도 자연히 감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생지원팀(장학)은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전체 지원자의 약 25~30%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던 봉사 및 텁방 분야가 평가 분야에서 제외됐다”

며 “대면 활동 제약(5인 이상 모임 금지 등)도 지원자 수 감소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현황을 파악했다. 실제로 2019년까지 꿈도전장학에 지원하는 팀은 평균 100 팀 정도였지만, 이번 학기 지원자는 27팀으로 그 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

이어 학생지원팀(장학)은 “코로나19 감염증 발생 이후로 정부 방역 지침 강화에 따라 대면 활동이 제약돼 장학금을 소진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종 결과 보고 심사 시 꿈도전장학 목표와 무관한 용도로 장학금을 지출한 내역이 지속적으로 보고돼 금액을 감축했다”며 “감축된 장학 금액은 코로나19로 인한 가계 곤란 장학금 확충에 지원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감축된 장학 금액이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가계 곤란 장학금 확충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본래 꿈도전장학은 성적이나 이수 학점, 가계 곤란 정도의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계 곤란 장학 등 다른 장학 제도와 차별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학생지원처는 장학금 사용처 조정에 대해 “지원자 수의 급격한 감소 등으로 인해 경희꿈도전장학의 규모가 줄어든 한편 코로나19 상황 이후 소득 분위에 따라 지급하는 가계 곤란 장학금 수요는 증가했다”며 “때문에 가계 곤란 장학금을 확충하는데 경희꿈도전장학의 감소 분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고 경희꿈도전장학의 지원자 수가 다시 증가하게 되면 장학금 지급액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장학금 신청하니  
장할 수밖에~**

신청기간: '21.5.18.(화) ~ 6.17.(목)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 가능  
재학생은 반드시 1차신청

## 신청기간

### 신청기간

'21.5.18.(화) 9시 ~ 6.17.(목) 18시

\*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 (단, 마지막 날은 18시까지)

###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이

'21.5.18.(화) 9시 ~ 6.21.(월) 18시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www.kosaf.go.kr](http://www.kosaf.go.kr) 접속 후 신청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필요



Android



iOS

### OR코드를 스캔하세요!

\* 한국장학재단 앱을 검색하세요.

\*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앱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2~3일 후 누리집에서 제출 필요서류 확인 후 온라인으로 제출
- 누리집 접속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장학금 신청현황 ▶ 서류제출에서 제출서류 확인 가능

신청대상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신청문의 1599-2000